



◇고회를 맞아 출안생 60년을 결산해 지난 4월8일 열린 '0대 김백봉' 공연에서 휘하에 '보살춤-만다라'를 추는 김백봉씨.

산문밖의 **시방** 무용가 김백봉씨

“왜 춤을 추는가” 60년 춤 외길 화두

“왜 춤을 추는가?”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 춤니다.”

30년도 더 전의 일이다. 경봉스님은 김백봉을 보자 말없이 한참 쳐다보더니 불속 한마디 질문을 던졌다. 얼떨결에 나온 대답. 그후 김백봉은 무대에 오를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곤 했다. 경봉스님은 이날 '백봉(伯峰)'이라는 이름이 너무 고고하고 외로운 이름이라며 '취봉(翠峰)'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었다. 이 별명은 이후 김백봉 이름앞에 늘 붙어다니는 호(號)가 된다.

왜 춤을 추는가. 이말은 60년 춤을 추는 동안 김백봉이 늘 자신에게 던진 화두이며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질문이다. 13세때 무조건 좋아 들어온 춤의 세계. 그 60년이 어느새 휘어져 감기운 순간의 춤동작처럼 잠깐이란 걸 고회를 맞은 요즘 느낀다.

그는 지난 4월 8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출안생 60년을 결산하는 '0대 김백봉' 공연을 가졌다. 제자 2백여명과 함께 대표작 명무(名舞)들이인 '화관무' '선의 유동' '무당춤' '침명심수' '부채춤' '장고춤'을 선보이고 마지막을 '보살춤-만다라'로 장식했다. 천수관음보살의 자비를 상징하는 춤이 끝나자 객석은 감격에 겨운 숙연함과 환희심이 파도처럼 일었다. 감동에 겨운 나머지 흐느끼는 관객들도 다수였다. 108번뇌로 상징되는 고단한 인생사. 삶의 질곡 하나하나를 다독여 주는 천수보살의 무한히 따사로운 자비. 섬스러운 동작과 부드럽고 절제있는 손짓 하나하나가 보는 사람들에게 연민과 자비심을 일으켜 마침내 용화세계로 향하는 마음 하나로 집약시킨 것이다. 그의 마음도 그속에 녹아 있음은 틀림없다.

“춤 동작 한 몸짓이 순간이고 그냥 허공에 사라집니다. 최선을 때는 무형인 춤을 어떻게 남길수 없을까 참 아쉬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

면 괜지 허탈감도 들었지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 느낌입니다. 최선을 다한 완벽한 춤은 보는 관객들의 마음에 영원히 각인되고 그 감동은 평생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유체를 움직이지만 사실은 영혼으로 추는 것이 춤입니다.”

이제는 한국 춤의 대명사가 돼버린 화관무와 부채춤은 그의 대표작들이다. 1947년 초연된 화관무는 태고의 태평시대를 기리는 춤이다. 궁중복식으로 정통적인 맛을, 한상으로 그려내는 유연한 맛을 표출한 화려하고 우아함이 특징이다. 특히 부채춤은 화사한 부채를 펴고 힘으로 리듬을 따라 흐르는 춤이 우아함과 극치를 이룬뿐 아니라 경쾌 정열한 춤사위는 보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자아낸다. 이 부채춤은 지난 1954년 김백봉이 초연한 이후 급속도로 퍼져 우리 무용단의 외국공연때면 빠짐없이 공연되는 대표적 춤이다.

“1953년인가 어느날 꿈을 꾸었어요. 온몸이 글씨같은 어느 분이 부채 하나를 주면서 '부채를 펴 봐라. 방방곡곡이 향기가 날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채를 받아 화 펴고 보니 법당에 운무가 깔리고 향냄새가 자욱했습니다.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 '부채님이다' 해 뵈려고 머리를 드니 얼굴은 안 보이고 다리도 손만 보이더군요.”

꿈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그때부터 부채를 사려고 돌아다녔다. 돈이 모자라 싹바느질을 해 어렵사리 부채를 사고 소도구를 장만해 선보인 부채춤은 단번에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그렇게 창작 안무한 작품이 무려 6백여편.

그는 기교로만 추는 춤을 단호히 거부한다. '살풀이'를 춘다면 단순히 동작만으로는 춤이 아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달랠수 있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서늘한 기운을 느낄수 있도록 내적으로 몰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춤이란게 의욕만 앞선다고 해서 잘 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춤이란 한동작 한동작이 '내마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무대에 나가면 일단 아무 생각도 안나요. 무아(無我)가 돼야 하지요. 춤추는 그 자체에만 몰입하다 보면 춤이 나인지 내가 춤인지 구별이 안가는 경지까지 가지요.”

어릴때 무척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딸에게 춤을 가르쳐주기 위해 아버지(김병삼)는 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맡아주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거지가 밥얻으러 오면 할아버지 밥을 먼저 쏘 다음에 거지들에게 따끈한 밥을 한두 그릇씩 퍼 주는 일을 매일 했어요. 손님이 오면 따뜻한 아랫목을 안보하고 추운 뒷목에서 자곤 했어요. 부모님이 광상심으로 배루신 공덕때문에 내가 이만큼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부부 이웃 사제(師弟) 등의 연(緣)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씨를 뿌리고 가꾸면 후대에 가서 그 열매를 따게 되는 것이란 인과의 도리를 나이들수록 확연히 깨닫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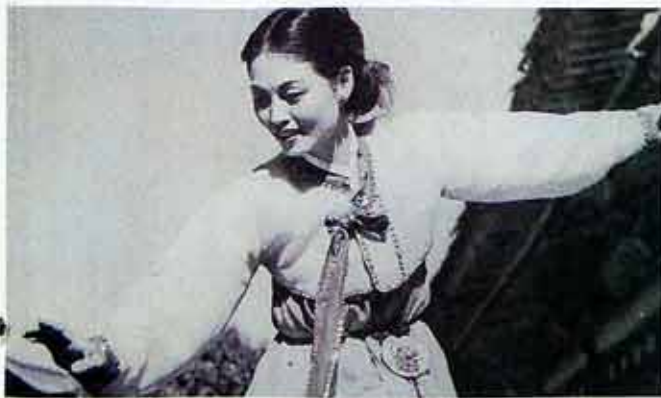
수백명이 넘는 그의 제자들은 '김백봉 춤 보전회(회장 유학자 공주대 무용학과 교수)'를 결성해 매년 공연을 갖는다. 한국무용계의 선구자이며 이제는 무용계의 신화가 되어가는 김백봉의 춤맥을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글=이경숙 사진=고영배 기자



◇김백봉씨가 꿈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한 '부채춤'. 세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 한국춤이다.

한 동작 한 몸짓
육체의 움직임은
허공에 사라지지만
춤과 내가 하나되어
내마음 가있는 자리
무아 이루면
보는 이들도
용화세계를 향해
한마음이 됩니다



◇1962년 25살때의 김백봉씨.

취재 수첩

김백봉씨는 '전설적 무용가' 최승희의 수제자이자 동서지간이다. 13세 어린 나이에 일본 중경의 최승희를 찾아 무용에 입문하게 된 그는 10여년을 최승희 밑에서 빌려 현대무용 중국 무용 등 모든 춤을 배운다. 최승희의 남편은 1920년대 유명한 문필가였던 안막(본명 안필승). 김백봉은 17세때 안막의 동생인 안재승씨와 결혼해 최승희와는 동서지간이 된다.

해방후 안막 최승희, 안재승 김백봉 부부는 일찍했다가 안재승 김백봉부부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길에 오

최승희 수제자... 두말 세손녀도 '춤꾼'

른다. 북한에서의 활동을 이유로 곤혹을 치른 김백봉은 이때의 어려움을 춤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풀어나간다. 이 와중에서 박기홍씨를 만나 승무를 전수받고 이종안씨에게서 태권무와 승무를 전수받는다. 또한 화관무 부채춤 장고춤 산조 등 언어어 창작무를 선보였다.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의 개막식 총괄안무로 우리춤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했다. 지난해 타계한 남편 안재승씨와 같이 경희대 무용과의 교수로서 지난 93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후학들을 지도해 왔다. 안씨는

무용가의 이본을 세운 인물로 무대 총체예술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 김백봉씨의 공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김백봉은 후진양성에도 많은 열정을 기울여 유학자(공주대) 임옥자(부산대) 유옥재(강원대) 박연진(효성가톨릭대) 이영희(국립경상대) 김말애(경희대) 김현숙(단국대) 전은자(성균관대) 장인숙(전북대) 장유경(계명대) 교수 등 많은 제자들을 길러 무용계의 중진으로 배출했다. 두 딸(안병현 안병주)과 세 손녀도 뒤를 이어 춤을 전공하고 있다.

